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구축 지속가능 농업 실현

국비 150억원 내년 상반기 착공
현경면 양학리 일원 영농기반 구축
신기술 실증시험포 등 시설 운영
기후위기 대응 지역 농업 제 역할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원안 승인을 받았다.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첨단농업복합단지는 무안스포츠파크 옆 현경면 양학리 일원에 21만여㎡ 규모로, 농업기술센터와 과학영농 기반시설, 신기술 실증시험포 등 첨단 농업시설을 집적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4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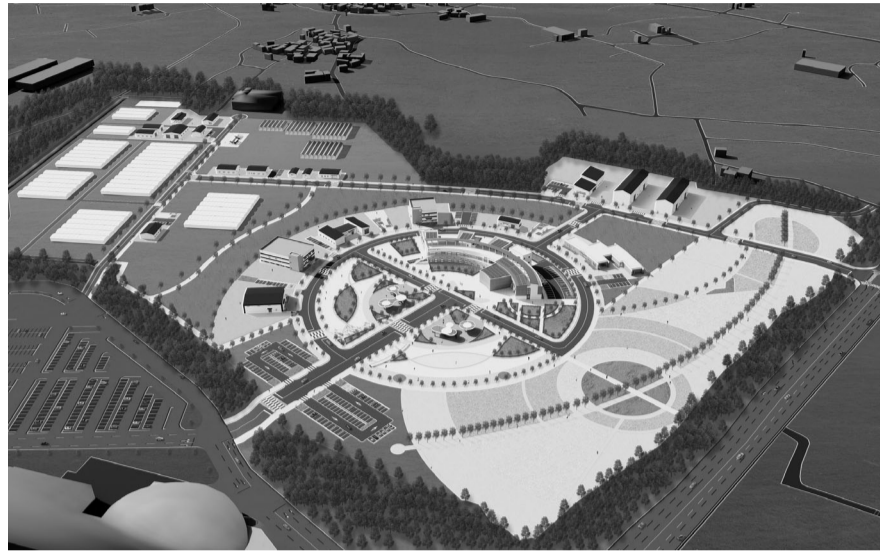
무안군은 지난해 11월 전남도에 군관

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 관계 부서,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 가결 심의를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사업 부지 중 7만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했으며 전체 사업 부지는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돼 150억원의 국비 확보와 더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사업 대상 부지의 약 98%인 농림지역은 무안군의 끈질긴 노력과 서삼석 국회의원의 설득이 더해져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동의를 받았다.

앞으로 군은 주민 공람·공고와 고시 절차, 설계 등 각종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안 첨단농업복합단지 조감도.

무안군 제공

김산 무안군수는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농업복합단지의 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준 전남도에 감사하다”며 “사업을 자질 없이 추진해 심각한

지는 기후 위기와 지역 농업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영암군, 5~13일 2095명

영암군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기 만족과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경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활용형’,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공동체사업단’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공익활동형 1690명, 역량활용형 240명, 공동체사업단 150명이고, 전담관리자 15명을 포함해 올해보다 80명 늘어난 총 2095명을 모집 예정이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역연금수급자 및 배우자도 참여 가능하다.

노인역량활동형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해 영암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모집기간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노인회 영암군지회, 영암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노인일자리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를 보거나, 가족행복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옥야리 고분군 사적 지정 학술대회 영암군, 5일 트로트가요센터서

영암군 주최, 고대문화재연구원 주관의 ‘영암 옥야리 고분군 사적 지정 학술대회’가 5일 오전 10시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열린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옥야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 성과를 집대성하고 마한문화에 대한 지역 안팎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영암군은 마한역사문화원 구축을 위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지하고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역사문화원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학술대회로 그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1991년 목포대학교박물관은 영암 옥야리 고분군에 6호, 4호 발굴조사를 처음 진행했다. 이후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 17·19호분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17호분, 18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옹관을 채택한 반면, 19호분은 석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면서 주변에 5기 정도 옹관이 추가돼 있는 양상이 확인됐다.

19호분 출토 청자잔은 옹관 내부 출토 첫 사례여서 의미가 컸다. 청자잔은 천안 용원리 고분, 공주 수촌리 고분, 무령왕릉,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 남조시기인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제 청자잔은 삼국시대 영암지역 수장층의 백제 중앙, 중국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영암지역의 고분 문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고분 자료의 사적 지정 등 보존·활용 방안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 군민 리더 대학 공개 강연 내일 군청대회의실

진도군은 2024년 ‘진도 군민 리더 대학’ 2회차 공개 강연을 4일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예술적인 소통으로 화합의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박아영 강사(아티스트텔러), 이상협 테너, 유명지 소프라노 등 3인을 초청해 인문학 공연을 진행한다.

박아영 강사를 비롯한 3인은 뛰어난 역량으로 세상을 바꾼 예술계 거장들의 작품 속에 숨겨진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과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군민들과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리더 대학의 공개 강연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진도=백재현 기자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 성황 완도군, 치유 관광 연계 운영

완도군은 지난 10월부터 완도해양치유센터, 정도리 구계동, 완도수목원 등 웰니스 치유 관광지와 연계한 1박2일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남파랑길은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의 남해안 구간으로 90개 코스 중 완도에는 86, 87, 88 코스(총 57.8km)가 있다.

완도 남파랑길 86 코스(24.5km)는 옛 남창교에서부터 청해진 유적지를 지나 완도해조류센터까지, 87 코스(18km)는 해조류센터에서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동, 화흥초등학교에서 끝난다.

88 코스(15.3km)는 화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상왕봉, 완도수목원을 지난다.

완도 남파랑길은 다도해를 품은 해안길, 고즈넉한 어촌 마을 안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탐방로 등 바다, 산 등이 어우러진 매력을 품고 있어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남파랑길 걷기 체류형 프로그램은 1박2일 동안 남파랑길 완도 구간 1코스 걷기, 해양치유센터 체험, 완도 내 숙박을 필수 조건으로 하며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0만원 상당이다. 이달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은 페어플레이(어플) 및 여행 공방(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난달 25일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가 개최한 '제2회 대한노인회 한궁대회'에 영암 11개 읍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영암군 제공

제2회 대한노인회 한궁대회 영암서 열려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지회장 조광호)가 지난달 25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영암 11개 읍·면 선수 등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대한노인회 한궁대회’를 열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한궁은 한국 고유의 전통 놀이인 투호와 궁도를 결합한 스포츠로, 날씨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

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양손 운동, 자세 교정, 집중력 강화 등에 좋아 어르신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각 읍·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대표 선발전을 거친 남녀 5명씩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다.

한궁 경기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 5회

씩 총 10회를 투구해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선수가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단체전은 도포면이 우승을 차지했고 시종면, 신북면이 그다음 순위를 이었다. 개인전 남자부는 영암읍 이석근 어르신이, 여자부는 도포면 김형자 어르신이 우승을 차지했다.

조광호 지회장은 “노인 여러분의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궁을 하면서 건강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민 삶의 질 높인다

환경적 불균형 해소

해남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촌공간 계획이란 지난 3월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이다.

해남군은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 11월 계획면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군 전체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촌공간계획에는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주민설명회뿐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특화지구에는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포함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후 첫 수립하는 농촌공간 계획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10년 후 해남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 부서와 깊이 고심하며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